

# LOI 강박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이 민 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Leyton Obsessional Inventory(Cooper, 1970)를 한국판 집단용 지필검사로 표준화하기 위한 예비연구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는 중학생 140명(남:57명, 여:69명), 고등학생 126명(남:57명, 여:69명), 및 대학생 160명(남:72명, 여:88명)으로서 총 426명이었다. LOI원판 문항을 우리말로 번안한 후 지필검사 양식으로 제작하여 이를 피험자들에게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로 신뢰도, 타당도 및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이를 전산처리하였다.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Cronbach- $\alpha$  계수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 타당도 검증은 위해서는 준거 타당도를 산출하였다. 검사 내용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성분 분석을 한 후 이를 Varimax회전시켰다. 전체 인원에 대한 증상 점수와 특질 점수를 합친 총점의  $\alpha$  계수는 .86으로 나타났으며 검사-재검사신뢰도는  $r=.84$ 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100명의 학생들에게 LOI와 SCL-90-R강박척도 점수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두 검사 점수들 간의 상관 계수는 .22( $P<.01$ )로 나타났다. LOI 69개 문항을 주성분 요인분석한 결과 2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eigen값이 1.00이상인 요인은 8개였다. 이 요인들은 포함된 문항 내용을 고려하여, 정리와 정돈, 완벽성, 불결과 오염, 반복, 확인, 청결성, 불길한 예상, 소심증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끝으로 전국 규모의 규준 작성과 단축형 및 아동용 검사 개발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강박장애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의 개발을 위해 여러 연구자들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대부분의 초기 연구들은 성격검사의 하위척도 중 하나에 강박장애를 반영하는 문항들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문항수도 적은 편이다. MMPI(Hathaway and Mckinley, 1951), Cornell 건강 질문지(Brodman, Deutenberger, & Wolff, 1956), 및 Maudsley 성격 검사(Eysenck, 1959)가 강박적이거나 완벽주의적인 특질에 관련된 문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강박증 척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임상적 증상과 강박적 성격특질을 적절히 다루고 있지는 않다.

강박장애를 바르게 평가하려면 강박장애의 성격 특질 뿐 아니라 증상을 평가할 수 있어야하고 이에 대한 주

관적인 괴로움의 정도, 이런 증상이 적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에 응해 제작된 것이 Leyton Obsessional Inventory(Cooper, 1970)이다. 본 연구는 Leyton Obsessional Inventory를 우리말로 번안하여 집단검사로 표준화하기 위한 예비연구이다. 여기서는 우선 강박장애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살펴보고 Leyton Obsessional Inventory의 특징과 한국판 검사의 필요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강박장애를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로는 Sandler와 Hazari(1960)의 연구와 히스테리-강박성 질문지(Caine & Hawkins, 1963)를 들 수 있다. Sandler와 Hazari(1960)는 100명의 신경증 환자들에게 867개의진술문 중 40개의 내용이 강박증과 관련된 Tavistock 자기-

평가 질문지를 실시하여 강박성향과 관련된 문항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강박증과 관련된 문항들에 대한 반응을 요인 분석하여 두가지 요인을 추출하고 각각 A-형과 B-형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A-형 요인의 문항들은 주로 잠잘 때 옷을 가지런히 개어 놓는 다거나, 지저분한 것을 싫어하고 일을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하려는 등, 자아-통조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강박 성격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B-형 문항들은 대부분 원하지 않은 생각이나 행동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고통이 수반되는 강박 증상을 나타내는 것들이었다.

Sandler와 Hazari는 그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강박 성격과 강박증을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주로 문항들이 강박적 성격 요인과 증상 요인으로 구분되는지를 확인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진단적 도구로서의 가능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후 여러 가지 연구 결과 이 검사는 일반 환자, 히스테리 환자, 또는 성격장애 환자들과 강박증 환자를 변별진단할 수 있는 변별력이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eed, 1969). Caine과 Hawkins(1963)의 히스테리-강박성 질문지는 강박적 측면과 히스테리적 측면이 동일 연속선 상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이를 측정하기 위해 50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Fould(1956)등의 연구 결과에 의해 이 검사가 강박성향을 측정하기 보다는 Maudsley성격검사의 내-외향성과 동일한 차원을 평가하고 있음(Cooper, 1970)이 밝혀졌다.

Hodgson과 Rachman(1977)은 강박증이라고 진단된 환자들을 그들의 증상적 특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개인내 및 개인간 비교가 가능한 검사를 제작하였다. 이들은 강박증에 관한 문헌의 개관과 환자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강박증상을 나타내는 65개의 문항을 만들었다. 이들 65개 문항 중에서 강박증 환자집단과 그 집단의 연령, 성별, 및 입원환자에서의 비율 및 Eysenck의 PQ척도 점수상에서 대응하는 비강박적 신경증 환자 집단을 의미 있게 변별해 주는 문항 30개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이들 30개 문항은 모수치 검증방법과 비모수치 검증 방법에서 양집단을 유의미하게 변별해 주는 것들이었다. 이 문항들은 확인(checking), 청결

(cleaning), 지체(slowness) 및 의심(doubting)척도로 구분되어 채점된다. Maudsley 강박성 검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조 내경(1985)에 의해 번안되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검사의 채점방식은 증상 유무에 따른 두가지 점수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증상의 다양성 정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강박적 성격 특질을 측정하거나 증상에 따른 주관적 괴로움의 정도와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방해정도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강박장애를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검사는 SCL-90-R(김 광일, 김 재환 및 원 호택), MMPI(정 범모 등, 1965)와 Maudsley 강박검사(Hodgson & Rachman, 1977)가 있다. 그러나 MMPI에서는 강박장애에 관한 하위척도가 없을 뿐 아니라 강박장애에 관련된 문항이 15개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D척도와 P1척도가 주로 강박성의 측정치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강박적 증상만을 측정하기 보다는 신경증적 증상을 전반적으로 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SCL-90-R은 강박장애에 관한 하위척도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에 포함된 문항수가 10개에 불과하며 그나마 기억력이 좋지않다거나, 일이 뜻대로 안되고 주의 집중이 안된다는 등 강박증 특유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강박장애를 포괄적으로 측정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Cooper(1970)는 강박장애를 측정하는 기존 검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강박증상의 범위와 강박 성격적 특질뿐 아니라 증상과 관련된 저항의 정도 및 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지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를 개발하여 임상적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Cooper가 제작한 Leyton Obsessional Inventory(이하 LOI라 함)는 기존의 검사보다는 각 증상의 상대적 심각성과 임상적 중요성을 더욱 효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주며 각 증상에 관한 양적 정보뿐 아니라 질적인 정보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Robertson & Mulhall, 1979).

원래 LOI는 가정주부의 가사와 육아에 관련된 강박성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만들기 위한 시도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임상 연구가들에 의해서 기존의 강박증 평가도구 보다 타당도와 실용성이 더 높다는 것이



2) SCL-90-R: Derogatis(1977)가 임상 면담의 보조 수단으로 개발한 자기-보고형 평정 척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김 광일, 김 재환 및 원 호택(1980)이 번안하여 표준화하였다. 이 검사는 정신과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90개 내용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최근 일주일 동안 체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에서부터 “아주 심하다”까지 5단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9개의 증상척도로 구분해서 채점하게 되어 있다.

### 절 차

LOI의 번안은 심리학을 전공한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5명이 각기 독립적으로 번안한 후 이를 가지고 전체 모임에서도 검토하여 가장 적절하게 번역되었다고 판단된 문항을 선택 수정하여 잠정적인 번안 문항으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번안된 검사 문항내용이 원문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명의 영문학 전공 학자에게 검토를 의뢰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검사를 만들어 국민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실시하여 문항 내용의 이해 가능성을 확인하여 최종 문항으로 채택하였다. 지필 검사로 변경하여 번안 제작된 LOI 한국판을 집단으로 실시하기 위해 검사 지시문을 작성하였으며 이 지시문에는 검사의 소개와 응

답방식이 설명되어 있다. 응답요령은 피검자가 우선 각 문항을 읽고 ‘예’와 ‘아니오’로 응답한 후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응답한 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어느정도 애를 쓰는지(저항 정도), 그것이 다른 일을 하는데 어느정도 방해가 되는지(방해 정도)를 4점 척도에 평정하는 것이다. 저항과 방해 척도 점수를 산출할 때는 69개 문항 중 39개의 저항과 방해 척도 문항만을 선택해서 계산하였다. 검사 실시는 검사자가 검사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해 준 후에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검사결과로 신뢰도, 타당도 및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전산처리하였다.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Cronbach  $\alpha$  계수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 타당도 검증은 준거타당도를 산출하였다. 검사 내용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성분 분석을 한 후 이를 Varimax회전시켰다.

## 결과 및 논의

### 집단별 반응특성

LOI검사를 표준화할 경우 규준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위하여 집단 및 성별 하위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표1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1. 집단별 하위 척도점수 평균(표준 편차)

집단	척도	증상	특 질	저 항	방 해	총 점
중학	남	(64) 17.51(8.13)	8.55(3.56)	15.18(12.98)	14.00(11.51)	26.06(11.18)
	여	(76) 20.42(6.20)	9.31(3.45)	16.23(10.45)	12.92( 9.15)	29.73( 8.59)
	계	(140) 19.06(7.20)	8.96(3.51)	15.74(11.67)	13.42(10.30)	28.01(10.01)
고교	남	(57) 21.56(7.53)	10.49(3.38)	16.70(10.77)	13.06(11.76)	32.05(10.44)
	여	(69) 23.87(5.10)	10.37(3.18)	19.73(11.40)	16.57(10.44)	34.24( 7.32)
	계	(126) 22.83(6.39)	10.43(3.35)	18.37(11.18)	15.35(11.10)	33.26( 8.89)
대학	남	(72) 19.87(6.78)	9.46(3.07)	14.66(8.90)	14.38( 9.61)	29.34( 8.85)
	여	(88) 22.47(6.83)	10.77(3.32)	15.98(10.46)	15.80(10.36)	33.24( 9.13)
	계	(160) 21.31(6.91)	10.19(3.27)	15.39( 9.79)	15.16(10.03)	31.48( 9.16)
전체	남	(193) 19.58(7.61)	9.46(3.46)	15.44(10.94)	14.10(10.88)	29.04(10.38)
	여	(233) 22.24(6.28)	10.19(3.36)	17.19(10.83)	15.11(10.09)	32.42( 8.62)
	계	(426) 20.98(7.10)	9.83(3.45)	16.36(10.92)	14.62(10.47)	30.81( 9.70)

각 척도의 성별간 차이를 보면 증상척도( $t(423)=3.88$  ( $P<.001$ ))와, 특질척도( $t(423)=2.18$  ( $P<.05$ ))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저항과 방해 척도에서는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강박적 경향성을 다양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때문에 받는 심리적인 고통 정도나 다른일을 하는데 받게 되는 지장 정도가 더 심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학력별 반응특성을 살펴보면, 증상척도 점수에서는 고등학생이 가장 높았으며, 대학생, 중학생집단과의 차이가  $F(2,419)=15.63$ 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질척도 역시 고교생, 대학생, 중학생 순으로 나타났으며  $F(2,419)=7.46$ 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저항척도는 고교생, 중학생, 대학생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F(2,419)=3.02$ 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방해척도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신뢰도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의  $\alpha$  계수와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Cronbach  $\alpha$ 로 내적합치도를 알아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척도별 alpha계수

집단	척도	증상	특질	저항	방해	총점
중	남(64)	.89	.65	.90	.88	.91
	여(76)	.79	.63	.84	.84	.93
고	남(57)	.87	.63	.85	.90	.89
	여(69)	.68	.58	.84	.83	.10
대	남(72)	.84	.56	.82	.86	.85
	여(88)	.83	.57	.86	.87	.85
전	남(193)	.87	.63	.86	.88	.89
체	여(233)	.79	.60	.85	.85	.83
계	(426)	.84	.61	.84	.86	.86

전체인원에 대한 증상점수와 특질점수를 합친 총점의  $\alpha$  계수는 .86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척도별로 살펴보면  $\alpha$  계수가 가장 높은 척도는 방해척도로 .86이며 가장

낮은 척도는 특질척도로 .61이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중학생 남자집단이 .91로 가장 높고 고등학생 여자집단이 .76으로 가장 낮다.

검사-재검사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66명의 여자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1주일 간격을 두어 실시한 검사-재검사 점수간의 상관계수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검사-재검사 신뢰도 및 평균(표준편차)

척도	검 사	재검사	상관계수
증상	19.21 (6.68)	17.42 (7.38)	.80
특질	9.44 (3.86)	8.27 (3.94)	.83
저항	13.02 (9.80)	8.58 (7.34)	.86
방해	11.82 (9.34)	9.39 (8.71)	.86

총점으로 계산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84$ 였다. 저항과 방해척도점수에서는 각각  $r=.86$ 으로 가장 높았으며, 특질척도는  $r=.83$ , 증상척도는  $r=.80$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nowdon(1980)의 연구에서 보고된 검사-재검사 신뢰도=.73-.77과 Hodgson과 Rachaman(1977)의 연구에서 나타난  $r=.80$ 보다 다소 높다.

### 타당도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100명의 학생들에게 SCL-90-R과 LOI를 실시하여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의 강박증척도(O-C)점수와 LOI의 하위척도 점수와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SCL-90-R의 강박 척도와 LOI척도 간 상관계수

SCL-90-R LOI	증상	특질	저항	방해	총점
남(29)	.33*	.16	.36*	.30	.29
여(71)	.24*	.11	.34*	.37**	.21
계(100)	.25*	.12	.32**	.33**	.22*

\* $p<.01$     \*\* $p<.001$

전체인원의 SCL-90-R강박증척도와 LOI의 방해척도 간에는  $r=.33$  ( $P<.001$ ), 저항척도와는  $r=.32$  ( $P<$

001), 증상척도와는  $r=.25(P<.001)$ , 특질척도와는  $r=.12$ (유의미하지 않음)의 상관을 보였다. 준거타당도는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LOI의 문항수가 69개인데 반해 SCL-90-R의 강박척도 문항수는 10개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면담자료, 임상관찰자료, 행동평가 자료 등 임상적인 준거에 대한 타당도 검증이 요구된다.

### 요인분석

426명에게 실시한 검사자료를 증상척도와 특질척도 문항을 위주로 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LOI 69개 문항을 주성분 요인분석을 한 결과 2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eigen값이 1.0이상인 요인은 8개였다. 이 요인들을 Varimax회전시켜 각 요인에 대한 문항의 요인부하량을 구하였다. 고유가 1.0이상인 8개요인은 전체변량의 63.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에 대한 부하량이 가장 많은 문항과 그 다음으로 많은 문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 요인의 명칭을 부여하였다. 그에 따라 요인 I은 “정리와 정돈”, 요인 II는 “완벽성”, 요인 III은 “불결과 오염”, 요인 IV는 “반복”, 요인 V는 “확신”, 요인 VI는 “청결성”, 요인 VII은 “불길한 예상”, 요인 VIII은 “소심증”요인이라고 명명하였으며 각 요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요인 I. 정리·정돈

8. 먼지라든가 불결한 것들을 아주 싫어한다.(.44)
16. 용모를 깨끗이하고 단정히 하려고 다소 마음을 쓰는 편이다.(.83)
19. 무슨일을 하건, 늘 옷을 깨끗이하고 단정하게 입으려고 주의를 기울인다.(.33)
20. 내 물건을 정해진 곳에 일정한 방식으로 두기를 좋아한다.(.48)
22. 집안을 항상 깨끗하고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애쓴다.(.71)
23. 잠시라도 방안이 어질러져 있거나 깨끗치 못하면 못마땅하다.(.61)
24. 깨끗하게 치운 방을 아이들이 어질러 놓으면 때때로 화가난다.(.36)

25. 가구나 장식품들은 항상 제자리에 정확히 놓여있는 것을 좋아한다.(.57)
27. 마루바닥이나 가구에 얼룩이 지거나 흠이 눈에 띄면 청소할 때가 아니라도 즉시 없애야 한다.(.41)
50. 청결은 그 자체가 미덕이라고 생각한다.(.42)
67. 일을 하는데, 시간이나 순서를 정하기를 좋아한다.(.33)

#### 요인 II. 완벽성

40. 신중하게 일을 해낸 경우에도 그 일이 미비하다고 느끼는 때가 종종있다.(.34)
41. 어떤 일을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정확하게 해낼 수 없을 땐, 불안하고 죄책감을 느낀다.(.51)
45. 내 자신이 하는 것까지 일들에 대해 스스로 자문하거나 의구심을 품는다.(.39)
46. 어떤 일은 나를 당황하게 하므로 멀리하거나 피해 버리려고 한다.(.45)
55. 사람들이 종종 내 신경을 건드려 안절부절 못하게 한다.(.34)
57. 사람들이 일을 신중하게하지 않거나 정확히 하지 않으면 화가 나거나 조바심이 난다.(.47)
69. 기차를 탄다거나 중요한 약속을 이행해야 될 때는 미리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주 세심하게 계획세워야 한다.(.33)

#### 요인 III. 불결과 오염

9. 누가 사용했다거나, 만졌거나 건드린 것은 더러워졌다는 생각이 든다.(.60)
10. 아무튼 다른 사람들과 부딪치거나, 다른 사람과 닿는 것이 싫다.(.39)
11. 땀, 침 또는 소변등의 신체분비물이 조금이라도 묻으면 불쾌하고 위험하며 옷이나 소지품을 오염시킬 것 같다.(.45)
31. 옷을 입고 벗거나, 세수하고 목욕하는데 정해진 순서대로 해야한다.(.31)

#### 요인 IV. 반복

1. 필요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일을 해야만 한다

- 고 생각하곤 한다. (.38)
5. 물건이나 일을 몇번씩 확인해야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34)
  33. 일이 확실히 잘 됐다고 생각될 때까지 몇번씩이고 그 일을 반복한 적이 있다. (.47)
  34. 뭔가를 몇번씩 세어보거나, 마음속으로 그 숫자들을 되뇌어야만 한 적이 있다. (.51)
  35. 어떤 일을 여러번 되풀이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일이 더더어진 적이 있다. (.55)

#### 요인 V. 확인

6. 가스나 수도꼭지 혹은 전기 스위치를 끄고난 뒤에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 (.72)
7. 문, 찬장 또는 창문이 정말 닫혔는지를 다시 가서 확인해야만 한다. (.61)

#### 요인 VI. 청결성

28. 방이 정말 깨끗하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더러워지기도 전에 방의 먼지를 털거나 청소를 한다. (.72)
29. 진정 깨끗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몇번이고 먼지를 털어내고, 청소를 하고 씻어야만 한다. (.47)

#### 요인 VII. 불길한 예상

2. 불쾌하거나 끔찍한 생각, 또는 그런 말들이 머리속에서 계속 떠오른다. (.42)
3. 가족중 누군가 사고를 당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 상상을 하게 된다. (.55)
63. 종종 심한 중병이나 암에 걸리지 않을까 하고 겁을 먹는다. (.46)

#### 요인 VIII. 소심증

36. 아주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끼곤 한다. (.60)
37. 사소한 것까지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35)

68. 모든 일을 제시간에 끝낼 수 없을 것 같아서 늦는다. (.45)

“정리와 정돈”요인과 “확인”요인은 Cooper와 Kelleher(1973), Kazarian과 Evans(1977), Murray, Cooper 및 Smith(1979)가 Leyton강박 척도를 사용한 연구에서 얻은 요인과 문항내용이 서로 유사하며 명칭도 동일하다. “완벽성”요인은 Kazarian 등의 연구에서 확인된 “질서(orderliness)요인”과 내용이 유사하며 “소심증”요인은 Murray 등의 “완결에 대한 욕구(desire for closure)”요인과 그 내용이 유사하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본연구에서 추출된 요인은 “반복”요인, “청결성”요인, “불길한 예상”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에서 강박장애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LOI를 우리나라말로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 검사 내용의 요인 구조를 밝혀보았다. 비록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규준이긴 하지만 이에 근거하여 임상장면과 학교장면에서의 진단 도구나 치료도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본 검사를 강박장애 집단 뿐 아니라 비강박적 정신과 환자 집단 및 정상인 집단에 실시하여 각 집단의 반응을 요인 분석하여 그 구조를 확인하고 임상집단간의 변별 타당도를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 규모의 표준화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문항 분석을 통해 검사 문항의 내적 합치도와 변별력이 높은 문항만을 골라 이 검사의 진단 평가능력을 높이면 서도 실시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단축형 LOI제작도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LOI 문항 내용이 대체로 성인들과 관련된 것이어서 아동기 또는 청소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아동용 LOI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 광일, 김 재환, 원 호택(1984) 간이 정신진단 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 정 범모, 이 정균, 진 위교(1965). 다면적 인성검사법 요강. 서울 : 코리안테스팅센터.
- 조 대경(1985). 강박행동의 객관적 측정에 관한 일 연구

- Maudsley강박행동목록 표준화. 서울대학교 학생 연구, 제20권 제1호, 81—90.
- Brodman, K., Deutchberger, J., & Wolff, H.G.(1956). *Manual for the Cornell Medical Index Health Questionnaire*. Cornell Univ. Medical College : New York.
- Caine, T.M. & Hawkins, L.G.(1963). Questionnaire Measure of the hysteroid/obsessoid component of personality : The HOG.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7, 206-209.
- Cooper, J.(1970). The Leyton Obsessional Inventory. *Psychological Medicine*. 1, 48-64.
- Cooper, J. & Kelleher, H.J.(1973). The Leyton Obsessional Inventory : A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on normal subjects. *Psychological Medicine*. 3, 204-208.
- Derogatis, L.R.(1977). *SCL-90(Revised) Manual*. *Clinical Psychometrics Research*. Unit, Baultimore, Johns Hopkins Univ. School of Medicine.
- Eysenck, H.J.(1959). The differentiation between normal and various neurotic groups on the Maudsley Personality Inventory,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50, 96-97.
- Hathaway, S.R. & Mckinley, J.C.(1951). *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anual*. Psychological Cooperation : New York.
- Hodgson, R.J. & Rachman, S.(1977). Obsessional-compulsive complaints. *Behavior Resaerch and Therapy*, 13, 389-393.
- Ingram, I.M.(1961). Obsessional Personality and anal-erotic character. *Journal of Mental Science*, 107, 1035-1042.
- Kazarin, S.S. & Evans, D.R.(1977). Modification and factorial analysis of the Leyton Obsessional Inventor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2), 422-425.
- Murray, R.M. Cooper, J.E. & Smith, A.(1979). The Leyton Obsessional Inventory : an analysis of the responses of 73 obsessional patients. *Psychological Medicine*, 9, 305-311.
- Reed, G.F.(1964). Obsessionality and Self-appraisal questionnair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15, 205-209.
- Robertson, J.R. & Mulhall, D.J.(1979). The Clinical evaluation of obsessionality : a development of the Leyton Obsessional Inventory. *Psychological Medicine*, 9, 147-154.
- Sandler, j. & Hazari, A.(1960). The obsessional : On the Psychological classification of the obsessional character traits and symptoms. *British Journal of Medicine Psychology*, 33, 113-122.
- Snowdon, J.(1980). A comparison of written and postbox forms of the Leyton Obsessional Inventory. *Psychological Medicine*, 10, 165-170.



**Preliminary Study for Standardization of LOI-Korean Version**

Min-Kyo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Leyton Obsessional Inventory(Cooper, 1970) was modified into a paper-and-pencil form to facilitate its group administration. Verification of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was carried out on the modified version replies of 426 students(middle school students; 140, high school students; 126, college students ; 160). Cronbach's alpha-coefficient was used to calculate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inventory, and turned out to be .86. The same consistency index was calculated for each of the four subscales. In this case, the alpha coefficients were .84(symptom), .61(trait), .84(resistance), and .86(interference). For the test-retest results with one week interval, the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80(symptom), .83(trait), .86(resistance), .86(interference), and .84(total). Validity was evaluated using scores of the LOI measures and scores of SCL-90-R. Correlations of the LOI measures and SCL-90-R measure were .25(symptom), .12(trait), .32(resistance), .33(interference), and .22(total). Subjects' responses to the inventory were studied by factor analysis. The principal-component method was used, with repetitions followed by Varimax rotation. Eight factors were identified, explaining 63.4% of the variance. These factors may be described as follows; I : Order and tidiness, II : Perfectionism, III : Dirt and contamination, IV : Repetition, V : Checking, VI : Cleanliness, VII : Unpleasant anticipation, VIII : Cautiousness. The requirement of further study for the standardization and development of LOI short-form and child version were emphasized.